

日本 青森縣 核燃料 週期 3施設의 事業化計劃과 地域情勢

小 菅 啓 嗣

〈日本電氣事業聯合會 核燃料사이클立地推進本部
青森本部長〉

1. 核燃料사이클 3施設 事業計劃의 概要와 現狀

현재 일본 국내에서 상업운전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설비는 39기, 약 3,100만kW가 되어 국내수요의 약 3할을 공급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이 원자력이 앞으로 자원소국인 일본의 에너지공급원의 기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핵연료사이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1) 2개 회사에 의한 사업화와 입지확보

일본전기사업연합회는 1984년 4월 青森縣에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우라늄농축 그리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매설의 3시설을 下北半島의 태평양연안에 입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했고, 그해 7월에는 青森縣 및 六個所村에 이 3시설의 구체적 개요를 제시해 정식으로 입지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그후 다음 해인 1985년 4월에 縣 및 村에서 입지협력요청을 수락한다는 정식답신을 얻음으로써 3시설의 주체인 日本原燃서비스주식회사와 日本原燃산업주식회사는 각각 六個所村에 현지사업소를 개설해 사업활동의 제일보를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日本原燃서비스(株)가 사업주체가 되어 준비

를 진행하고 있는 재처리공장의 시설규모는 연간 최대 재처리능력 약 800톤의 우라늄이고, 또 사용후핵연료를 받는 저장시설은 약 3천톤의 우라늄이며, 더욱 해외로 부터의 반환폐기물 저장용량은 유리고화체 1,400개로서 모두 1989년 3월에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 현재 정부가 안전심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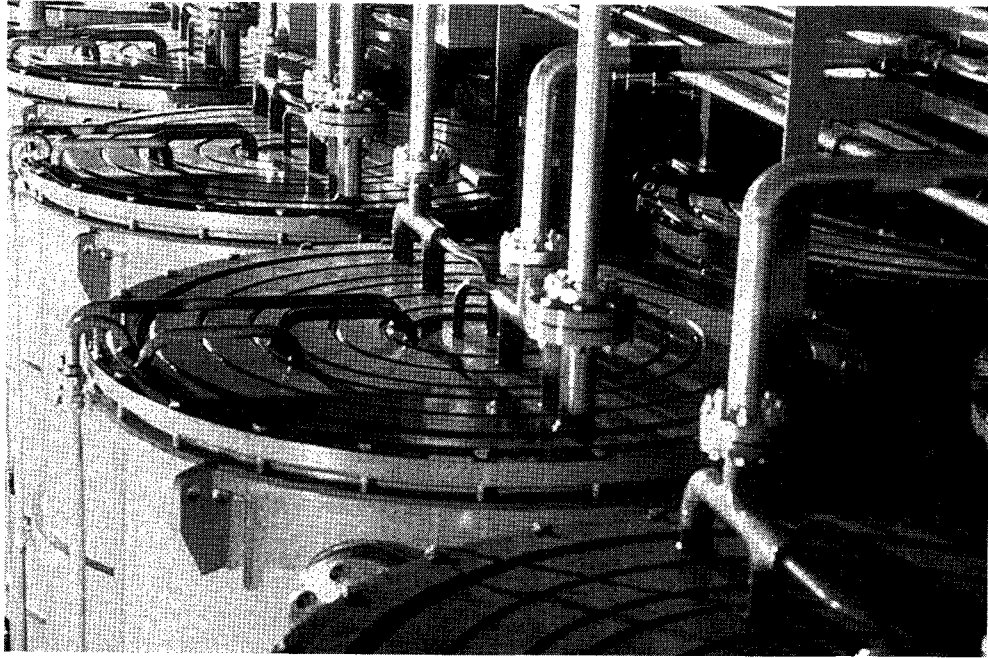
부지면적은 390만 m^2 , 건설비는 8,400억엔이며 조업시의 요원은 약 2,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日本原燃産業(株)이 사업을 추진하는 2시설 중 우라늄농축공장의 시설은 150톤SWU/年이며, 1991년부터 조업을 개시해 최종적으로는 1,500톤SWU/年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중 제1기 공사분 600톤SWU/年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허가를 얻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센터에 대해서는 200ℓ드럼 약 100만개 상당의 저장용을 계획해 제1기 공사분 20만드럼 상당분의 사업허가 신청서를 1988년 4월에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300만드럼 상당의 시설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日本原燃産業(株)의 부지면적은 2시설합계 약 360만 m^2 이며, 건설비는 우라늄농축공장이 약 1,800억엔, 그리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센터는 약 1,000억엔, 조업시의 요원은 2시



설을 합해 약 500명을 전망하고 있다.

原燃 2사 3시설 합계 약 750만m²의 부지에 대해서는 1986년 8월에 토지소유자인 무쓰小川原開發(株)과 매매계약을 체결, 1988년 9월에 시설부지의 취득을 완료했다.

(2) 3시설의 건설공정

재처리시설의 운영개시는 1998년경,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반환폐기물 저장개시는 1995년경으로 예정되며, 현재는 준비공사로서 공장부지 조성 및 전용도로의 신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라늄농축공장은 1988년 10월에 건설을 착수했는데, 내년 봄에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다.

원심분리기는 계획에 따라 반입설치하고 있으며, 초년도 150톤SWU / 年에 대해서는 내년 가을에 조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저준위 폐기물 저장센터는 1992년에 저장개시 예정인데, 현재는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단계이므로 멀지 않아 본격 착공될 것이다. 사업의 진척상황은 당초계획에 대해 모두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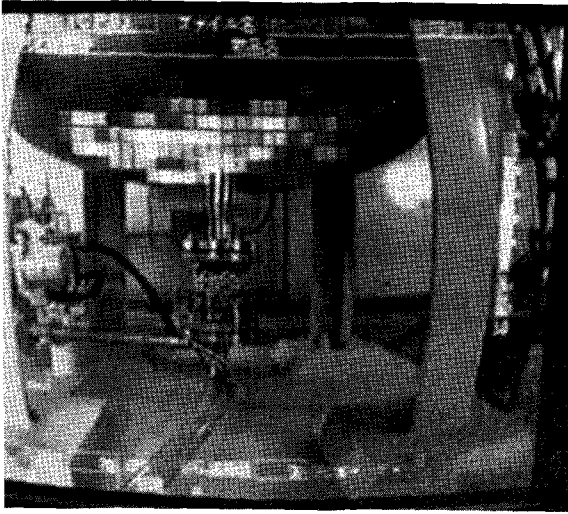
면서 일보일보 진척시켜 나갈 방침이다.

2. 地域의 社會的 情勢와 理解活動

(1) 青森縣內的 情勢

먼저 전국 공통의 문제로서 1986년 4월의 체르노빌원전 사고후 특히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계기로 부역을 맡고 있는 주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침투된 것인데 그 무렵, 반원전을 주제로 한 서적류가 범람했고 반원전 강연회가 각지에서 개최되는 등의 움직임이 青森縣內에서도 주부층을 비롯해 농민, 특히 청년·주부층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88년에는 縣농업청년협의회 등 농업관계단체와 縣생활협동조합, 시민그룹이 잇따라 縣에 대해 핵연반대서명부를 제출하는 한편 동년 8월에는 법정투쟁을 위한 소송단이 縣 내외의 시민그룹으로 구성되는 등 구체적인 반대행동이 두드러졌다. 더욱 原燃사이클시설의 건설을 저지함으로써 일본의 원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반원전운동의 최대목표가 되었고,



縣 외 소비지에서 현내 각 농협·어협을 비롯해 식품관계회사 등에 반대하지 않으면 靑森縣 產品은 사지 않겠다는 취지의 투서작전을 철저히 펴서 불안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核燃반대」 또는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농민, 특히 六個所村에서 멀리 떨어진 직접적으로 영향이 적은 津輕방면에서 높은 소리로 부르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농협관계단체에서의 반대결의가 잇따랐으며 그 후 국정선거인 參議院의원선거, 또는 금년 2월의 衆議院의원선거에서는 농민이 중심이 되어 반핵연후보를 옹립, 사회당계 노동조합 등과 연휴해 당선시키는 등 보수기반이 강한 靑森縣內에 큰 파문을 던지는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도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縣지사선거를 비롯해 縣의회 의원선거 등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바이다.

이처럼 全縣의으로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衆래의 원자력 입지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반대운동의 고조에 대해 우리들은 열심히 PA활동을 전개해 왔다.

(2) 縣民에 대한 이해활동, PA활동

六個所村 뿐 아니라 縣內 전역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기사업연합회와 日本原燃서비스(주), 그리고 日本原燃産業(주) 3자가 1체가 되어 작년 3월에 靑森市내에 原燃합동본사를 개설해 체제를 강화 확충해 왔다.

이후 原燃사이클에 관한 설명회, 연구회는 1989년도 1년간에 약 1만2천명에 이르렀고 또 茨城縣 東海村에 있는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의 재처리공장 등 현지시찰에는 5,500명이 참

가했다.

특히 東海村에서의 견학은 시설의 안전성과 지역진흥을 이해시키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의 시설과 거리를 견학함과 아울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해하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에 신문 등 미디어를 이용한 공모에 의한 버스견학회를 비롯해 농협 또는 각종 단체, 그룹 등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설명회나 연구회에 대해서도 전력사업에 관련있는 사람 뿐 아니라 널리 일반縣民을 대상으로 한 버스견학회와 함께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지역간담회를 금년 8월부터 시작하여 눈에 띄는 홍보활동의 하나로서 효과를 올리고 있다.

더욱이 이런 일반홍보활동에 덧붙여 原燃사이클시설입지에 의한 지역진흥의한 대책으로서 지역주민 고용의 최우선은 물론, 부품 및 재료도 되도록 지역에서 조달하는 등 사업에 직접 기인되는 것과 靑森縣內에의 기업유치에도 전력업계를 통해 힘쓰고 있다. 이미 5개사 6개사업소의 縣內 진출이 결정되어 일부는 운영을 개시했으며, 4개사의 공장유치가 내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역과의 공존공영을 위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업관계자에 공통되는 풍문으로 떠도는 피해의 걱정, 또는 부인층에 침투해 있는 방사능·방사선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도록 다면적인 이해활동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해 해외의 선진제국에서는 본래 군사이용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이용에 투철한 핵 연료사이클시설 건설은 세계에서 최초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이고 핵알레르기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일본에서는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

우리들로서는 앞으로도 불퇴전의 결의로 최 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